

# 고창 마한사람들, 백제무덤에 잠들다

고창군·문화유산마을, 오늘 봉덕리 봉덕고분 긴급발굴조사 현장 공개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재)문화유산마을(원장 이영덕)은 2023년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조사된 '고창 봉덕리 봉덕고분' 긴급발굴조사에 대해 오는 7일 오전 11시에 현장을 공개한다.

'고창 봉덕리 봉덕고분'(이하 봉덕고분)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봉덕마을 뒤편의 야트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도기널물인 고창 만동유적과 인접하고, 사적으로 지정된 '고창 봉덕리 고분군'과 5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인근으로 '고창 봉덕유적'과 '고창 도산리 유적' 등 마한~백제시대 무덤과 대규모 집자리 등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봉덕고분'은 2022년 경작과정에서 무덤의 뚜껑돌로 추정되는 대형 석재와 토기편 등이 노출되어 경작자가 고창군에 신고하여 그 존재가 알려졌다. 이에 고창군은 유적 훼손 방지와 유적의 성격과 규모 파악 및 보존대책을 수립하고자 문화재청에 긴급발굴조사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됐다.

발굴조사된 '봉덕고분'은 무덤방(女室) 앞쪽에 출입구(女門)와 널길(羨道)을 갖춘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이다. 무덤방은 거칠게 가공한 깎돌을 가지런히 쌓아 축조했고, 출입구는 무덤방의 남쪽벽 일부를 터서 만들었다. 널길은 무덤방과 같이 깎돌을 이용했으며 널길 바닥에 배수로를 설치했다.

무덤은 무덤방 내부에서 금동 귀고리 1점과 소량의 구슬(자마노, 감청색 구슬), 뚜껑토기 등을 비롯해 다수의 관못(棺釘)이 함께 출토돼 목관(木槨)을 사용하여 시신을 매장했다.

특히 '봉덕고분'은 하나의 봉분과 무덤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백제 무덤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의 봉분(봉분)에 여러 개의 무덤방을 조성하는 '고창 봉덕리 고분군'(사적) 등 마한 분구묘 축조방식과 차이가 있으나, 무덤의 껍질거리(부장품) 등은 마한 무덤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봉덕고분'은 고창지역의 마한세력이 백제 무덤 축조방식을 도입한 중요한 사례로, 마한에서 백제로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고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봉덕고분' 발굴조사를 통해 아산면 봉덕리 일원에 위치한 마한~백제 무덤의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어 앞으로 고창지역 고대사의 일면을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고, 생생한 발굴조사 현장과 유물을 가까이서 살펴볼 기회를 지속해 확대하고, 향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및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공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조사 현장과 유물을 직접 보고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문화예술과(063-560-2943) 및 조사기관인 (재)문화유산마을(063-564-11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창군은 올초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했다.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은 복원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조사비 전액을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고창군이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봉덕리 봉덕고분 전경

유사하다.

이를 통해 '봉덕고분'은 고창지역의 마한세력이 백제 무덤 축조방식을 도입한 중요한 사례로, 마한에서 백제로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고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봉덕고분' 발굴조사를 통해 아산면 봉덕리 일원에 위치한 마한~백제 무덤의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어 앞으로 고창지역 고대사의 일면을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고, 생생한 발굴조사 현장과 유물을 가까이서 살펴볼 기회를 지속해 확대하고, 향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및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공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조사 현장과 유물을 직접 보고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문화예술과(063-560-2943) 및 조사기관인 (재)문화유산마을(063-564-11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창군은 올초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했다.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은 복원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조사비 전액을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고창군이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 익산시, 제43회 가람시조문학상 시상식 개최

가람시조문학상 서연정 시인·신인상 류미월 시인 수상

익산시는 지난 4일 여산 가람문화관에서 '제43회 가람시조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병도 국회위원을 비롯한 도·시의원, 가람선생 유족, 이정환 시조시인협회 이사장 등 수많은 문학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제43회 가람시조문학상은 '시 쓰는 햇빛'의 서연정 시인, 제15회 가람시조문학 신인상은 '숙목'의 류미월 시인이 각각 수상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시상식 식전 축하공연으로 익산 기세배 보존회의 공연과 여산 출신 테너 김상진 씨가 '오솔레미오', '네순도르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러 시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시에서 주최하는 가람시조문학상은 익산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작품 세계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시조문학 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 시인에게 수여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익산시에서 개최했다.

한편 익산 여산 출신인 가람 이병기 선생은 시조시인이자 국어국문학자로서 시조의 현대화와 한글 수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 전통 한지 도배 교육 진행

익산 이병기 선생 생가 집중호우 피해... 교육 실습 일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는 지난 3일 익산 이병기 선생 생가에서 한지도배전문가인 지월아트 소양한지갤러리 조순환 대표를 초청해 한지 도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익산 이병기 선생 생가는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로 안채 내부의 장판 훼손이 확인, 이에 교육 및 실습의 일환으로 전통 한지를 이용한 도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홍의성 경미수리팀장은

"전통 한지를 바르는 순서부터 방법까지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오늘 익힌 노하우를 전수해 센터의 전문적 수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해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시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돌봄사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경미한 훼손에 대한 수리를 하고, 문화재 주변의 쾌적한 보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은성 기자

## 제33회 동리대상 김수연 명창 수상

고창 동리국악당서 시상식 열려... 현대례·축하공연 등 진행

'대한민국 판소리 최고 권위' 제33회 동리대상 시상식이 6일 오후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많은 군민과 국악인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 제33회 동리대상은 김수연 명창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현대례, 기념식, 동리대상 시상과 축하공연 남도민요와 판소리 '수궁가'를 김수연 명창과 제자들이 공연했다.

김수연 명창은 군산에서 태어나 집 근처에 있는 군산국악원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끌려 8세 무렵 김재경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면서 판소리에 정식 입문했다.

박초월(1917~1983), 성우환(1935~2014)에게 판소리 수궁가·심청가·춘향가 등을 차례로 배웠다. 30세가 되면서 그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1978년 남원춘향제 명창대회에서 장원, 1989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1992년 KBS국악대경연 대상 등 최고 권위의 판소리 대회에서 수상하며 명창 반열에 올랐다.

1995~2008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재직하며 판소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했다.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가 되었으며, 박초



월 명창의 장점인 화려한 시김새와 깊은 성음을 잘 전승하여 좌중을 압도하는 크고 안정된 소리를 구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사)미산제 수궁가 보존회 이사장을 맡아 판소리 진흥을 위해 애쓰고 있다.

동리대상은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하여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사람(법인 포함)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